

실망치 말고 계속 씨앗을 뿌려봅시다!



총 회장
신 상 범 목사

2017년 5월 24일, 그날의 설렘과 두근거림을 아직 기억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지 40여년, 아직도 생각만 해도 가슴 두근거리는, 사랑하는 성결교회를 향한 거룩한 부담감을 실천할 때가 왔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제111년차 총회장으로 첫발을 떼며 '개혁의 선봉 성결교회 개혁의 완성 사중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500년 전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외침이 종교권력에 짓눌려 신음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교회를 바로 세웠습니다. 지난여름 안 후스와, 루터 그리고 츠빙글리의 그림자를 뒤쫓으며 그들이 걸어간 길이 여전히 우리가 가야할 그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개혁은 부단 없이 지속되어야 하며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이 개혁을 향해 가는 바른 방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112년 전, 그 바른 길을 걷는 이들이 이 땅에 복음전도관을 세우고, 경성성서학원을 세웠습니다. 복을 치고 나팔을 불며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모으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성결의 은혜를 누리며 신유의 은혜를 체험하면

서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면서 중생·성결·신유·재림의 사중복음이 이 땅의 희망임을 굳게 믿고 붙들고 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세는 사라지고 이제 유지조차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신은 믿지 않더라도 내 자녀만큼은 교회를 다니게 하겠다는 부모들은 사라지고 소위 가나안성도가 100만 명에 달하며 교회를 향한 신뢰도는 끝을 모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라는 허울 좋은 명목 하에 시도되는 동성애 합법화와 교회나 목회자를 조세원으로 삼고자하는 정책과 함께 오일머니를 핑계로 이슬람을 쉬 용인하는 법안까지 대 혼란의 시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만만히 볼 일이 아닙니다.

지난 1년간 총회장으로 교단을 대표하여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업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와 교단의 현안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총회장으로 취임을 하며 약속하였던 것처럼 평생을 농어촌교회나 도시 작은 교회에서 외로이 사역하다 은퇴 후 아무런 대책을 갖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동역자들을 돕기 위해

제게 배정된 판공비와 교통비, 각종 사례 등을 모아 교역자공제회의 재정에 보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한 의도가 늘 선한 결과를 낳지 않는 것을 절실히 경험한 1년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시편의(126편 5,6절) 말씀을 굳게 믿으며 되새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랑하는 성결가족 여러분! 그리고 제111년차 대의원 여러분! 오늘의 역사는 지나가고 내일이라는 새 시대를 맞이하더라도 성결의 복음은 우리가 영원히 붙잡을 든든한 반석이며 우리 성결교회는 이 땅과 민족의 굳건한 보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12년을 지나 그 연수가 더하여 지더라도 성결의 선배들이 피땀 흘려 세우고 지킨 이 교회와 성결의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더 굳건히 서게 합시다. 이제 저의 임기가 끝나 한 발짝 뒤로 물러서게 되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쉬지 않고 함께 이 길을 걷겠습니다. 지난 1년간 부족한 저를 믿고 지지하며 교단 개혁의 길에 함께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2018년 5월 12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신 상 범 목사